

두산에너지빌리티 '분식회계' 논란 기사에 대한 입장

- 한국경제 10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입장 -

1. 기사내용

- 한국경제는 '23.10.9일자 「“손실 고의분식” VS “반영 끝냈다”...금감원-두산 ‘공방전’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인도에서 수주한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, 감리위는 다음달 초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중으로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	책임자	과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담당 부서 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윤정숙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오세천 (02-3145-7730)